

# 단 한컷의 화면에 담는 정문일침의 웃음

## 순수카툰 고집하는 작가들의 모임 '서울카툰'

카툰(cartoon)은 극화나 네컷짜리 신문기사 만화와 달리 보통 한컷의 화면에 별다른 지문 없이 그림 자체로 생활주변의 에스프리를 전달하는 만화 형식의 하나. 오히려 만화보다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커리커처와 흡사해 혼동을 일으키는 카툰은 줄거리가 있거나 정치성을 띤 만화를 선호하는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다지 폭넓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장르에 속한다. 이렇듯 카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툰을 문학에 비유하면 시의 세계와 같다”는 생각을 갖는 카툰니스트들의 모임이 있다.

지난 91년 4월 현역에서 활동 중인 10인의 카툰니스트들이 창립, 현재 13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카툰'(회장 史二路)은 “순수카툰만 하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이 모임을 통해 작업의 동기를 부여받고 카툰의 영역을 넓혀 가기 위해 구성된” 모임이다. 월례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할 뿐 아니라 작품집 발간과 전시회를 개최해 작품의 질을 높이는 데 주 목적을 둔 서울카툰은 교보문고 옆 표준빌딩 8층에 자그마한 사무실(725-0063)을 마련, 작품계좌 의뢰도 받으며 조용하지만 의미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워낙 작가들의 저변이 넓지 못해 채 스무명도 안되는 회원들이라고는 하지만 서울카툰은 현역 카툰니스트들이 거의 망라된 모임. 「스포츠투세일」에 카툰을 연재했던 회장 사이로씨를 비롯해 역시 「일간스포츠」에 고정란을 맡아 카툰의 위치를 한 단계 높인 김마정씨, '투가리'란 캐릭터로 널리 알려진 이해광씨

**현역 카툰니스트들의 모임인 '서울카툰'의 회원들은 이 모임을 통해 순수카툰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있지만, 지면 부족과 카툰에 대한 독자들의 인식이 적어 큰 어려움을 갖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일본만화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만화계의 쇠신을 위해서도 카툰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등이 이 모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의 만화연구소인 청산국제만화연구소를 설립한 공주대 임청산교수와 조관제씨, 신송균씨 등이 서울카툰을 이끌고 있다.

“편집자들의 인식이 부족해 한 신문에 2, 3개의 시사만화를 실으면서도 카툰을 도외시키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기껏 카툰을 실게 되면 외국의 것을 게재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시회를 갖고 싶어도 스폰서가 나서지 않아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툰에 대한 편집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지면이 절대부족한 게 카툰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는 사이로회장은, “이로 인해 독자층이 더욱 늘지 않는다”고 전한다. 물론 카툰이 발달하지 못한 데는 더 큰 사회적 문화적 원인이 숨어 있다. 우리나라에 카툰이란 장르로 구분



광화문 사무실에 모인 '서울카툰' 회원들. 왼쪽부터 김마정 이해광 사이로씨.

될 수 있는 만화가 선보인 것은 이미 30여년 전의 일이다. 그 이전 노수현화백의 「명당구리」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뿌리깊은 나무」 「아리랑」 등의 잡지가 공모를 함으로써 우리의 카툰은 한때 발화점을 찾은 듯했다.

그러나 이후 열기가 시들해졌고,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신문연재만화가 정치·사회적 격변기와 맞물려 독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카툰은 뒷전으로 밀려나 현재까지 뚜렷한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카툰의 침체에 대해 김마정씨는 “시사만화에 수십년 동안 길들여진 독자들이 잔잔한 일상의 웃음을 전하는 카툰의 매력에 불감증을 보이고 있다”면서, “독자층도 문제지만 만화가들에게 퍼져 있는 카툰 경시풍조가 더욱 문제시된다”고 전한다. 그의 말처럼 우리 만화계를 주도하는

‘실세’는 많은 독자층을 갖고 있는 극화 만화가들이며, 따라서 지방생들 역시 그 쪽으로 발길을 두고 있다. 편집자들도 “카툰을 제법 그리니까 네칸짜리 만화를 그려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카툰을 극화나 시사만화를 그리기 위한 연습단계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카툰은 어떤 사건이나 줄거리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짜내 한정된 화면에 지문도 생략한 채 그림으로만 독자와 만나는 무척 고난도의 수업이 필요한 만화 장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어른은 정치만화에 아이들은 일본만화에 빠져들고 있는 요즘 서울카툰 회원들은 카툰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계의 카툰수용을 원하고 있다. 특히 쉽게 풀이된 경제·과학서들에는 카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 최태원 기자

“이 소설을 당신의 도서 목록 최고 순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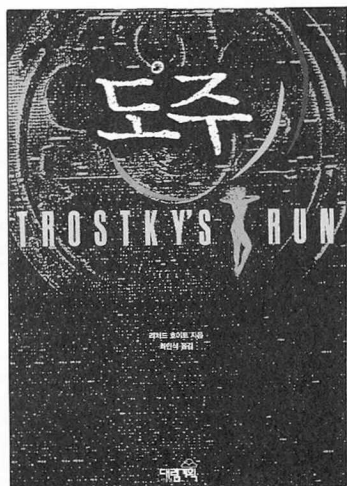
— 뉴욕타임즈誌 —

- 발간 1주만에 재판 돌입
- 全美洲를 휩쓸었던
- 회오리같은 첩보소설!

리처드 호이드 지음  
최인석 번역

대림기획  
도서출판

TEL. 268-4902 FAX. 277-6946



## 미합중국 대통령을 암살하라!

백악관의 지반이 흔들리고 있다.

정치란? 사실폭로-추적-도주-검은침묵

영웅은 시대와 역사의 괴리 속에서 튕겨나온 이단자인가!  
천지의 대변동 속에서도 실재 상황 아래 정확한 판단으로 등산용 얼음도끼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다.

허구인 이 작품에 묘사된 모든 인물과 사건이 만일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나, 발생했던 사건과 흡사하다면 그것은 이 시대가 낳은 모순과의 우연일 것이다.